

농업계 동향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증액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2일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2,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0% 이상(1,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1,752농가가 4,270억 원(농가당 2.4억 원)을 지원받아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농가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매도하여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이고, 농지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도한 농지를 낮은 임차료로 임차하여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기간(7년, 3년 연장 가능) 중 다시 매입(환매)할 수 있으므로 경영희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환매기간(7년)이 지나기도 전에 18농가가 소득증가 등으로 경영이 호전되어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환매해감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희생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를 '4,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4일 「농지매입·비축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은퇴·전업하는 농업

인이 늘어나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농지가격도 떨어져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전업농·신규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전업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750억 원으로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가 매입의 우선 대상이다.

매입된 농지는 임대 희망자의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임대 대상자는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창업농 등 새로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은 물론이고 농산물 수출·가공 등을 하는 기업 등도 포함된다. 임대기간은 5년(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임대)으로 하되, 임차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농지의 약 50%를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시행은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은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전업을 위해 경영 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진청, 「규제개혁 이력추적제」 실시

- 진행상태를 알려주는 온라인
"규제관리 신호등제" 운영 -

농촌진흥청은 연간 1,000여건의 규제·제도개

선 과제 발굴·개선을 목표로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현장 규제·제도개선」을 보다 효율적·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개혁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이력추적제」는 발굴된 규제·제도개선과제 및 건의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력을 상세히 추적하여 개선작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토록 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발굴자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의 진행상태를 개선완료과제, 진행중인 과제, 지연·미처리과제로 구분하고 각각 녹색, 노랑, 빨강색 등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신호등제를 운영하고, 매일 확인·점검을 통해 개선노력에 대한 직원들의 긴장감을 항시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연초부터 전 직원별 2인 1조의 팀 활동과 더불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자(341천명), 농업인·소비자단체(65개), 농업계 대학·학회, 시니어자문단, 시군 영농현장모니터요원(161명)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나서 2월말 현재 400여개의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된 과제는 개선 수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규제개선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규제개선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굴과제의 심사, 개선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제 발굴·개선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승진 가점 부여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청장은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농촌에 자본과 인력이 과감하게 투자되어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전직원이 규제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잡는다.

- 화학비료 대비 밧짚퇴비 1ha당
CO2 62톤 더 저장 -

유기농업이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간 유기농업 연구포장에서 화학비료 대신 퇴비, 녹비 등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결과, 상당량의 탄소가 토양에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밧짚퇴비는 투입 3년 후 화학비료 투입에 비해 1ha 당 16.9톤의 탄소를 더 저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62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반면, 화학비료만 주었을 때는 탄소축적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비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토양의 탄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농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는 공중 질소를 고정해 질소 양분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탄소 9.9t(이산화탄소로 환산시 36t)를 토양에 저장함으로써 화학비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농가에 많이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의 경우 밧짚퇴비나 녹비작물보다 낮은 1ha 당 5.2t의 탄소저장기능을 보였는데, 이는 유기질 비료가 토양에서 분해가 빨라 탄소저장 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장은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저감기능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 유기농업은 물론 일반 농업에서도 토양탄소함량을 높일 수 있는 녹비재배 등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 확립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하였다.

올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되는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과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은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위를 여건변화에 맞게 발전적으로 바뀌어나가는 근거를, 「양곡관리법」은 공공부문 쌀급식 등 쌀소비 촉진과 쌀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

하려는 것이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새만금 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제·개정 법률안은 「낙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병관리법」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이해당사자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농약관리법」은 고독성농약의 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자재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를 농산물과 같이 실시하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 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3월 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연금제도」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 「농지연금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령농 사망 시 그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65만원(예상금액이며 향후 상품모형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이 아닌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의 예와 같이 70세 고령 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 시, 매월 연금액 약 65만원 이외에도 벼를 경작할 경우 32만원, 임대할 경우 19만원 상당의 추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담보를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회수하게 된다.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 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소득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실경작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을 위해 '신규 진입' 요건을 보완하였다.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에 '실종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하여 승계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한국농어촌

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을 삭제하여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직불금 등록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등록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를 현재 4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하여 경작 증명을 수월하게 했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해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전념하는 신규 농업인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등록신청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산 녹비작물로 '종자' 시장 노린다.

- 농진청, 국내 최초 헤어리베치 품종 '보라' 개발 -

농촌진흥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학비료 대체용 녹비작물로 헤어리베치 품종 '보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를 겨냥한 친환경농업 종사자들은 품질 좋은 녹비작물 종자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녹비작물 종자는 매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왔으며 2009년의 경우 수입량이 13,614톤(269억원)에 달했다. 또한 수출국의 작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컸으며, 이로 인한 외화유출도 많았던
계 사실이다.

이번에 개발한 헤어리베치 '보라'는 국내자생종을 품종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외국의 우수한 품종인 웰타(Welta) 보다 개화기가 13일 빠르면서 월동률이 5%가량 높고 질소비료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국내외 녹비작물 종자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녹비작물 종자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된 헤어리베치 종자의 자급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2008년도 재배면적 4,450ha 기준으로 25억원에 달하며, 2012년에는 재배면적이 60천ha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화학비료 대체금액 또한 19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헤어리베치 신품종인 '보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종자생산의 수준을 넘어서 농한기 유희농지에서의 재배농가 소득 창출과 함께 화학비료 대체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보전, 토양유기물의 공급에 의한 토양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대기탄소의 고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농진청 작물환경과 김민태 박사에 따르면 2012년에 헤어리베치 종자 소요량의 전량을 국내종자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경기도 평택, 충남 예산·당진, 경북 예천, 전남 장흥·강진, 제주 등 7개소 60ha에서 42톤을 생산한 다음 종묘업체 주관으로 매년 증식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물환경과장은 "헤어리베치는 녹비작물 중에서도 화학비료 대체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면서, 많은 농업인이 영농비 절감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업에 좋은 '보라'를 많이 이용하여 농업의 녹색성장과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발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4일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 정책의 종합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성장 녹색생명산업, 건강한 삶과 매력적인 먹거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의 3대 정책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전 2020」의 5대 전략과제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체질 강화

농어업 체질 강화를 위해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체를 2020년까지 34만호(2008년 25만호)로 확대 육성한다. 또한 첨단·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을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불제도를 통합, 개편한다.

② 신성장동력 창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곤충 등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5대 생명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든다. 또한 비식용 농작물 품종개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달성하며, 농업용 미생물자재 개발 및 고품질 시설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출한다.

③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식품산업을 2020년까지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전략 품목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또한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식' 프로젝트를 통해 한식의 브랜드 제고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2020년에는 30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춘다.

④ 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범부처 차원의 '국가식품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정부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안정적 식량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량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⑤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지역리더를 2020년까지 1만명 육성하며, 지역 핵심자원을 산업화하고 농어촌다움의 보전과 가치창출에 역점을 둔다. 나아가 도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농어업 모델을 개발, 지원한다.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20」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라는 슬로건 하에 추진해 온 다양한 농식품 정책을 포괄하고, 고령농·영세농 등 서민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기반 위에 농식품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전략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년 농림기술개발사업 투자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산·학·연을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201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총 7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중 167억원은 신규과제에, 534억원은 기존 계속과제 등에 지원한다.

특히 금년 농정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종자산업육성, 쌀소비 촉진 및 농식품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신규 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분자농업기술, 농림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신소재 개발, 주요 작물의 분자유종시스템 구축 등에 향후 3~5년간 1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제품 개발, 농식품 위해물질 검출기술개발, 살처분 가축의 소각장치 개발, 항생제 대체 동물질병 치료제 개발 등에 3년간 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284개 계속과제에 총 5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녹색기술 및 육종기술개발분야 183억원, 첨단농자재개발분야 119억원, 농산업현장기술분야 136억원, 수출전략기술분야 9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률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을 의무화하였고, 계속지원 연구는 연구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평가결과 하위 20%(중전 10%) 연구에 대해서는 조기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연구팀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연구비 환수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올해 3월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휴대폰으로 원산지·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수입 관련 영업자가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여 위해사고 발생 시 긴급 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 권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농식품부는 본 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일반소비자 1,000명과 한우 사육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1%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한우 사육농가의 75%가 본 시스템이 원산지 둔갑 방지를 통해 사육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력관리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시스템에 기록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사고발생 시 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는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 2월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3월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후 올해 12월 중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봄맞이 '농기계 점검' 이 안전사고 막는다.

— 농진청, 봄맞이 농기계 점검·정비 철저 당부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농기계 점검. 겨우내 묵혀놓았던 농기계를 그냥 사용했다가 고장으로 예기치 않은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농기계의 고장 없는 사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점검, 정비요령을 발표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주요 점검 및 정비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는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준다. 윤활유가 필요한 곳은 정기점검 일람표에 따라 윤활유를 주입하고, 각 부위의 볼트,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의 양 및 상태를 점검한다. 유량점검 게이지를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 색깔이 검거나 점도가 낮으면 교환한다. 연료필터도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연료탱크, 연료관, 연결부 등에 균열이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연료탱크 안에 침전물 등 오물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고 연료를 채워둔다.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냉각수 양은 적당한지도 확인한다. 냉각수는 보조 물탱크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다. 에어컨 리너의 경우 건식은 엘리먼트의 오염상태를 보아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한다. 배터리 충전 및 단자 상태도 꼼꼼히 살펴본다. 충전상태는 배터리 윗면의 점검창을 통해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되었거나 흰색가루가 묻어 있을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활유를 발라준다. 각종 전기배선 및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교환한다.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3~4분간 난기운전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배터리의 방전 유무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끝으로 농번기에 사용될 간단한 소모품이나 연료, 엔진오일 등은 사전에 확보해 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관리기 등 5종에 대한 점검·정비 정보를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www.nass.go.kr) 「농업기술기술포털 ⇒ 농업기계 ⇒ 농기계정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정보는 점검 정비 및 소모품 교환, 고장증상별 원인과 조치사

항, 정기점검일람표, 보관요령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돼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농진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주의 당부 -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농기계 사고의 경우 4~6월에 가장 많은 37%가 발생했으며, 이중 경운기 사고가 72%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도로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사고는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서 전체 사고의 69%가 발생했는데, 60세 이상의 운전자는 50세 미만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운기 교통사고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나 높지만 후방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등화장치 부착률은 38%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는 농업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지도기관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홍보 강화는 물론 등화장치 부착지원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이다.

- ① **농기계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익힌다.**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작업 전에는 반드시 각부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한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 ② **농기계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 놓고 정비점검을 해야 한다.** 벨트나 체인, 탈곡장치, 경운날 등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다. 작업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정비할 때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한다.

- ③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신중한 자세로 작업한다.**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작업에 임할 때는 항상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농작업을 수행한다.
- ④ **농작업에 임할 때는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다.** 헐렁한 옷이나 소매가 긴 옷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하고, 긴 머리는 뒤로 묶거나 모자 속으로 집어넣는다.
- ⑤ **농작업은 2시간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조금씩 일을 마치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 농작업은 여유를 가지고 2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 ⑥ **농기계에는 운전자 1명만 승차해야 한다.** 경운기, 트랙터의 옆 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 ⑦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진행한다.** 논두렁을 비스듬하게 넘을 경우 기체가 뒤집힐 수 있다. 작업기는 낮게 내리고 천천히 직각방향으로 넘어야 한다.
- ⑧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도로에서 선회하거나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하여 방어운전을 하며, 교차로 통행 또는 도로 진입 시에는 전후좌우 충분히 살핀 다음 진행한다.
- ⑨ **도로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부착해 방어운전을 한다.** 도로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 반사판 등을 부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꽃매미, 빛 보지 못하고 최후 맞는다.

- 농진청 직원들 꽃매미 월동알
제거작업에 직접 나서 -

농촌진흥청은 최근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 방제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안성, 천안 등 꽃매미 발생 의심지역의 월동알 제거작업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진청에서 핵심사업으로 진행하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과 연계해 부서별 1과 3촌 자매결연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촌일손돕기와 더불어 인근 농업인 및 시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꽃매미알 제거방법 시연 및 연구성과 홍보, 새로운 방제기술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 꽃매미 방제불을 조성하고 있다.

외래 병해충으로 알려진 꽃매미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2007년 7ha, 2008년 91ha, 2009년 2,946ha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월동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4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과수원에 날아들어 분비물 배설을 통한 그을음병 유발 및 즙액을 빨아서 나무 생장을 저해시켜 포도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농진청은 그동안 꽃매미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약제를 등록하고 방제요령 등 기술 지도를 통해 다각적으로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트랩식물을 이용한 현장실증시험 연구를 경기 안성, 충남 연기 등 4개 지역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개발된 연구성과를 보급하기 위한 현장평가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꽃매미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는 4월 하순까지 월동알을 제거하고, 부화 후 5월 중순부터 적용약제에 2~3회 방제하고, 내년 발생밀도를 줄이기 위해 가을철에 1~2회 방제를 실시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적기에 방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인삼, 논 재배시 해가림은 '청색 이 으뜸!

- 청색차광지, 4중직 차광망보다
투광률 20% 이상 높아 -

농촌진흥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할 경우, 적합한 해가림 피복물을 실험한 결과, '청색 차광지'가 가장 뛰어났다고 발표했다.

인삼은 연작장해가 심한 작물로 밭 토양에서는 10년이 지나야 재 경작이 가능하므로 최근에는 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논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배수가 약간 불량한 논토양에서 42% 정도 재배되고 있어 습해로 인한 인삼 수량감소와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현재 논토양에서 여러 종류의 해가림 피복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토양에 가장 적합한 해가림 피복물을 조사해 그 효과를 검증했다.

농진청은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에서 해가림 피복물의 종류별로 투광량을 조사한 결과, 청색 차광지의 투광률이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던 4중직 차광망(청색3겹+흑색1겹)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나 광합성 작용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청색 차광지는 다른 피복물에 비해 생리장해(황증) 발생률은 가장 낮고 지하부 생존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과습 피해를 받기 쉬운 논토양에서 청색 차광지로 해가림을 하면 누수가 차단돼 토양 과습을 막아주고 또 광합성 작용도 촉진되어 4중직 차광망, 은박코팅지보다 인삼뿌리 수량이 증가돼 인삼생육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온이 낮은 봄철(4월 중순부터 6월 상순)과 가을철(9월 중순 이후)에는 청색 차광지로만 해가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높아지는 6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는 청색 차광지 위에 흑색 2중직 차광망을 추가로 덮어주면 투광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생기는 고온장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인삼과에서는 앞으로 논토양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리장해(잎 황증, 뿌리 적변)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함께 토양수분이 부족하기 쉬운 밭 토양에 적합한 해가림 자재 개발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추억의 '파리' 피부미백에 탁월한 효과

- 멜라닌색소 생성 65% 억제 연구결과 특허등록 -

농촌진흥청은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파리 추출물이 피부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파리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의 중간물질인 도파크롬(dopachrome) 생성을 현저히 억제할 뿐 아니라, 생쥐에서 분리해낸 색소합성세포(melan-a)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파리 추출물 10 µg/ml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약 65.3% 억제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 미백제로 사용되고 있는 알부틴(α -arbutin)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과이다. 이러한 파리의 피부미백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특허등록 됐으며, 향후 기능성 화장품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으로는 미백효과를 보유한 스킨, 아이크림, 로션, 에센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화장품 산업 외에도 파리 추출물은 껌이나 제과, 제빵 분야 등 변색 방지 목적의 식품첨가제로도 활용가능성이 높다. 파리는 열을 내리고 해독, 이노작용에 뛰어난 약효를 가진 생약재이자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제조된 추출물 역시 독성 및 부작용 등의 문제가 없어 장기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농촌진흥청 인삼약초가공팀은 “최근 자연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추세에 따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파리 추출물은 순수 천연물이라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에 밝혀진 연구결과와 추가연구를 통해 앞으로 파리를 이용한 기

능성 제품 산업화에 힘을 기울여 농가 신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진청, '병풀'에서 사포닌 만드는 유전자 찾아

- 인삼 아닌, 작물에서 찾기는 이번이 처음 -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인삼에서만 발견된 사포닌 합성 핵심 유전자를 최근 '병풀'(병을 고치는 풀)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유전자는 '담마레네디올' 합성 유전자로, 현재 인삼에서만 발견됐고 고려인삼의 이 유전자 산업재산권은 이미 일본이 확보한 상태다. 이번 연구결과는 처음으로 인삼이 아닌 다른 작물에서 사포닌 합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담마레네디올' 합성효소 유전자를 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특허출원했으며, 국제학술지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 2009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인삼에는 내분비계, 면역계, 대사계 등 약리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담마레네디올' 합성효소 유전자는 전체 사포닌 합성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사포닌 인삼 개발에 적용하거나 신기능성 웰빙 작물 개발에 적용한다면 그 산업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인삼과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신기능 웰빙작물인 '사포닌 채소'와 같은 품종 개발을 위한 첫 단계를 넘었기에 향후 다양한 기능성 품종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련 유전자를 더 발굴해 인삼 사포닌을 합성하는 작물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출처 : 농촌진흥청>

‘물고랑’ 깊게 팔수록 녹비작물 생육 좋아져

- 농진청, 봄철 녹비작물의 ‘습해’ 예방 당부 -

농촌진흥청은 봄철을 맞이하여 값비싼 화학비료의 절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널리 이용되는 녹비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재배농가에 철저한 배수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에서는 “녹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월동 후 기온이 오르면서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습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자운영을 많이 재배하는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헤어리베치나 녹비보리, 호밀 등을 많이 재배하는 중부지방에서는 눈과 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재배지의 배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월동한 녹비작물은 겨울철 내내 휴면상태에 있으면서 생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습해를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장은 “녹비작물의 습해 정도는 호밀, 녹비보리와 같은 벼과보다 질소함량이 많은 헤어리베치, 자운영과 같은 콩과가 더 심한 경향이다”며, “특히 여름작물 농사에서 질소질 화학비료를 100% 가까이 절약할 수 헤어리베치는 요즘처럼 비가 많은 경우에 잎이 물에 녹아내리면서 생장점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미리 물고랑을 깊게 만드는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잡곡’이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

- 농진청, 잡곡의 항암, 항염증, 항산화 등
건강기능성 구명 -

농촌진흥청은 잡곡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개발을 위해 공동연구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조, 기장, 수수, 팥, 식용피 등 잡곡이 항당뇨, 항암, 항염증, 항

산화 활성 등 건강기능성이 높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구명하였으며 그 중 수수와 기장의 기능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혈당상승을 유발하는 α -아밀라제와 α -글루코시다제 저해효과로 알 수 있는 항당뇨 활성은 조, 기장, 수수, 식용피 등 대부분의 잡곡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수수와 기장의 경우 50% 이상의 저해율을 보여 대표적인 효소활성 저해물질인 아카보즈(Acarbose)와 대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장과 수수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한 결과, 암세포 사멸율은 각각 77.7, 64.1%로 항암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정상세포에서는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암세포 특이적인 효과임을 확인하였다.

세균성 염증유발물질인 지질다당류(LPS, lipopolysaccharide)에 의해 일어나는 염증에 대해서는 조, 기장, 수수, 팥 등이 40~97%까지 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기장이 97.3%, 수수가 88.5%로 높은 항염증 활성을 보였고 세포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잡곡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수수와 식용피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진 토코페롤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항산화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폴리페놀 함량은 수수의 경우 흑미에 비해 2배가량 많이 함유하였고 항산화기능이 알려진 Genticic acid 등 19종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식용피, 팥, 조, 기장의 경우도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작물부장은 “이러한 잡곡의 건강기능 성분에 대한 활성평가를 동물시험까지 확대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후 기능성 농식품 및 품종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배 껍질 '얼룩' 원인에 따라 대처법 달라

- 농진청, 배 껍질 장해원인과 대처법 숙지 당부 -

농촌진흥청은 과피 얼룩을 포함한 배 과실 껍질 장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즘 이런 증상이 많은 이유는 작년 7월 배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늦은 설 명절로 저장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배 과실 저장 중에 생기는 껍질장해는 먼저 곰팡이 균에 의한 과피 얼룩과, 화학물질에 오염된 과피 오염과, 그리고 수확직후 갑자기 저온저장고에 넣었을 때 생기는 과피흑변 증상이 있다. 병에 의해 감염된 과실은 원인이 되는 병 관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화학물질이나 생리장해가 원인일 경우는 자재사용이나 재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피얼룩은 곰팡이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농가에서 저장후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과수원 전반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봉지도 통기성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꼬마배나무이나 각지벌레 발생이 많으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저장고에 입고한 이후 과실이 신선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어야 병 발생이 늦춰질 수 있다. 과피오염과는 봉지 고정핀에서 흘러나온 녹물에 오염되거나 과실 속봉지에 처리된 화학물질이 과피에 묻어나오는 경우에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과피얼룩병에 비해 과피오염과는 색이 더 진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저장기간이 진행되더라도 증상이 더 진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오염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고정핀을 코팅핀으로 바꾸든지 결속위치를 정확하게 정해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봉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증이 된 제품으로 하되, 오염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있게 사후대

책을 의논할 수 있는 업체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과피흑변과는 저장 중 과피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껍질부분에만 얇게 증상 생긴다. 이 반점은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과피를 변색시켜 발생된다.

이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배 중에 칼리질 비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하고 햇빛투과가 좋은 과실봉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저장 전에 상온에서 10일 가량 예건처리하며 저장고과 과습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배시험장에서는 “농가에서 저장후기의 얼룩덜룩한 배 과실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과 증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 '허용기준' 바뀐다.

- 농진청, 농약검사법 개정... 농약사용량 감소 기대 -

앞으로 농약 검사시 주성분 함유량에 대한 판정기준이 바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검사방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주성분이 기준 함유량에 미달되는 농약에 대해 무조건 부적합 처리하던 것을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 내에서 함유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을 $\Delta 2.5\%$ 이하 $\Delta 2.5\%$ 초과~ 10% 이하 $\Delta 10\%$ 초과~ 25% 이하 $\Delta 25\%$ 초과~ 50% 이하 $\Delta 50\%$ 초과 등 모두 5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를 두고 판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성분 함유량이 50% 인 농약의 경우 기존에는 49.9% 가 함유되어도 부적합 처리되었으나, 앞으로 개정된 검사방법에서는 $47.5\% \sim 52.5\%$ 사이에서 주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적합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약 주성분 함유량 검사시 하한 규정은 있고 상한 규정은 없어 농약산업체에

서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주성분을 기준치보다 많이 넣음으로써 단위 면적당 농약 투여량이 많은 실정이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을 일정한 폭의 허용범위를 두어 관리해오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기존 유통농약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된 검사방법을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6일 대전에서 '제11회 한국농약분석협의회(KOPAC)'를 개최하고, 농약산업체와 본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품질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촌진흥청 농약평가과장은 “이번 검사방법이 시행되면 농약산업계는 농약 원료를 절감할 수 있고, 농업인은 농작물에 적정량의 농약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첨단 효소 융복합기술로 100% 쌀빵' 시대 연다.

- 글루텐 무첨가 100% 쌀빵제조기술 및 쌀빵용
초다수성 '보람찬' 품종 개발 -

농촌진흥청은 글루텐 첨가 없이 100% 쌀로 빵을 만드는 기술과 이에 적합한 수량성이 높고 내병성에 강한 쌀빵용 일반계 초다수성 '보람찬' 벼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주)강동오케익이 공동개발한 첨단 효소 융복합 기술은 '트렌스글루타미나제' 효소와 전분, 포도당 등 몇 가지 부재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글루텐' 첨가 없이 쌀로만 빵을 만드는 기술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효소는 빵가공에 필수적인 밀의 “글루텐” 단백질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유도한다. 이 기술은 쌀가루 반죽의 물성을 좋게

하여 제빵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고 모양이 잘 유지되도록 하여 쌀빵의 식감과 상품성을 매우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2009년 개발된 '보람찬' 벼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빵 가공적성에서 반죽이 쉽고, 수분보유능력이 좋으며, 노화가 천천히 되고 빵맛도 매우 우수하다. 또한 이 품종은 10a당 쌀 수량성이 733kg으로 통일계 초다수 품종과 수량성이 비슷한 일반계 초다수성으로 원료미의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병해에 강해 친환경재배에도 적합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쌀빵 원료미 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인과 산업체간 계약재배로 대량생산이 되도록 품종 및 기술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제품의 원가절감(12%)을 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수량성이 높은 '보람찬' 품종이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재배되어 고품질쌀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가공 원료미로서 소비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적 생산지를 선정하고 특산단지화하도록 기술지원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벼맥류부장은 “쌀 소비촉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공용 쌀의 지속적인 수량성 증대는 물론, 쌀 가공용도별로도 최적 품종을 육성하고, 나아가 가공 산업체의 새로운 가공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쌀 소비확대와 쌀 가공품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㉞